

광주 대표 미술시장 미리보니 더 끌리네

‘아트광주22’ 2차 프리뷰

28일까지 동곡미술관서
중견작가 10인 58점 선보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트광주 22’에 앞서 프리뷰 전시가 열리고 있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아트광주22 2차 프리뷰 : 끌리네!!’다. 이번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광주 지역 중견 작가의 작품들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전시다.

참여작가는 김선희, 김진화, 김혜숙, 변경섭, 송유미, 이호국, 장유림, 정명돈, 조성태, 홍정호 10인이며 전시작품은 58점이다.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아트 등 장르도 다양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이호국 작가의 ‘나들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녹음이 진 나무숲 사이를 자전거를 타는 두 사람이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한결 차분하게 한다. 지역의 소식이 담긴 지역 일간지를 이용해 만든 김혜숙 작가의 ‘Remember 1980-무등산’도 인상적이다. 광주 그리고 전남에서 벌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은 오는 28일까지 ‘아트광주22 2차 프리뷰 : 끌리네!!’를 열고 광주 중견작가 10인의 주요작품을 선보인다.

어지는 갖가지 사건과 사고 소식이 담긴 신문은 작가의 손길에 따라 산의 봉우리가 되며 아름다운 무등산의 모습을 갖췄다. 김선희 작가는 자신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주제로 작품을 그렸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슈퍼맨과 아이언맨 헬멧 등 영화 속 영웅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작가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느끼는 애견인의 행복을 작품에 담았다. 송유미 작가는 선을 반복한 추상작업을 선보인다.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쉬지 않

고 드로잉을 했다는 작가의 새로운 도전을 만날 수 있다. 붉은 물감을 물에 흘트려 놓은 듯한 느낌의 작품 ‘무한에 대한 상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한의 선들이 뒤엉켜 하나의 면을 이룬다. 작가는 무한한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송유미 작가가 선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 변경섭 작가는 점으로 면을 구성한 형형색색의 작품을 선보인다. 기본 조형요소 점·선·면에서 탄생한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조성태 작가는 나무 모형과 LED 조명을

활용해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moon’은 나비모형이 겹쳐 하나의 원을 이루고 그 원을 비추는 빛이 마치 달과 같아 인상적이다. 보문 복지재단 동곡미술관 정영현 이사는 “최근 미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아트광주22를 앞두고 지역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전시를 감상하며 마음이 끌리는 보물같은 작품을 찾아보고, 삶의 영감을 되찾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이나라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님’

관방천
윤삼현

투명한 물그림자 밟고
물 위를 걸었다
참선하는 하늘 깨지 않게
옷자락 추스르며
까치밭로 걸었다.

ACC, 매달 주제 도서 추천 서비스 9월 중국문화·글쓰기 100권 소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개월 간 ‘ACC 라이브러리파크 도서관 도서 추천 서비스(북큐레이션)’를 제공한다.

북큐레이션이란 책(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제와 상황에 맞는 책을 선별해 구성하는 ‘책장편집’을 말한다.

이에 따라 ACC는 매달 아시아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 주제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주제 등 두 부문으로 나눠 관련 도서 100여 권을 라이브러리파크 도서관 이벤트실에서 전시,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9월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문화를 소개한 도서 70여 권을 선정했다. ‘중국사 산책’, ‘중국 개항도시를 걷다’, ‘중국 명화 깊이 읽기’ 등이다. 중국의 역사, 미술,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문서와 이미지로 만날 수 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글쓰기의 힘과 책 읽기의 즐거움을 오롯이 담은 30여 권도 함께 볼 수 있다. ‘문장의 품격’, ‘나를 위로하는 글쓰기’, ‘독서의 발견’이 그것이다.

10월에는 중앙아시아 관련 도서와 기후변화와 인간의 삶에 대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러 11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관련 도서·역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작품, 12월 아시아 종교와 명절·겨울에 읽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 내년 1월 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새해맞이 삶의 지표를 주제로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김영화 작가 초대전 ‘꿈, 희망’

내달 5일까지 전남대 용봉관

김영화 ‘꿈여행II’

여행을 통해 작품에서 영감을 찾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김영화 작가 초대전 ‘꿈, 희망’이 10월 5일까지 전남대 용봉관(대학 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김영화 작가의 가족과 여행을 주제를 담은 작품 25점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다. 작가는 가족을 일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의 기본단위로 보고, 여행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힘을 얻어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파악한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 그 일상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동화적인 화풍으로 그려내고 있다. 대상을 단순화한 도안과 은은한 파스텔 톤의 다양한 색채는 때 묻지 않은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는 평가다. /이나라 기자

2인 연주자가 펼치는 풍자가극 ‘아파트’

오늘 광주공연마루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2인 가극 ‘아파트’가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공연마루에서 열린다. 2인 가극 ‘아파트’는 앙상블 오페라 예술감독 류재준이 기획을 맡았다. 문화연은 작곡과 작사, 연출은 남인우가 참여했다. 작곡가 류재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아파트’라는 소재를 공연예술로 풀었다. 공연은 피아노 연주와 삶의 이야기가 담긴 가곡으로 현실 그대로의 삶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예술로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에 대한 한국적 요소, 고수와 소리꾼이 주입새를 주고받고 무대 밖 관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판소리’의 구조가 도입됐다. 화자로서 곡의 중심에 있는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과 배경을 관할하는 피아니스트 김가람이 극을 이끌어 나간다. 작품은 ‘경비원’, ‘층간소음’, ‘아파트 구입’, ‘선분양’, ‘기러기 아빠’, ‘명예퇴직’, ‘학교폭력’, ‘택배기사’ 등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사에 담은 곡들로 구성된다. 바리톤 김재일은 15개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화자로 변신해 1인 다역을 소화한다. 그에 따라 변하는 김가람의 피아노 선율이 각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시의성, 세상을 풍자하는 해학이 가진 재미 요소, 신선한 형식 등 ‘아파트’가 가진 여러 가지 매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극으로 작품성과 재미를 고루 갖췄다. 티켓은 전석 3만원(8세 이상 관람).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통해 예매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